

여야정 국정협의회 오늘 첫 가동... “민생 추경 결론”

AI 산업·청년 일자리 창출 등 논의 이재명 “청년 취업난 IMF 이후 최악” “중도 보수” 발언 두고는 파열음도 김부겸 “당 정체성 혼자 규정” 비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국민의힘을 향해 20일 여·야·정 대표가 한자리에 모이는 국정협의회에서 인공지능(AI) 산업 경쟁력 강화와 청년 일자리 창출 등을 위한 민생 추경(추가경정예산) 편성을 결론내자고 19일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여야와 정부 당국 모두 추경에 동감해온 만큼 20일 국정협의회에서 결론을 내리면 좋겠다”고 말했다.

그는 “국민의힘이 당정 협의에서 AI 추

경 추진을 언급하고 내년 상반기까지 2000장 수준인 GPU(그래픽처리장치)를 2만장으로 늘리겠다고 밝혔다”며 “만시지탄이긴 하지만 제가 대표연설에서 강조한 신성장을 위한 국가 투자와 케를 같이 하고 있어 참 다행”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민주당은 이미 반도체 지원과 R&D(연구개발) 지원까지 포함한 5조원 규모의 추경을 발표했다”며 “함께 논의하자”고 했다.

또 “한국은행은 어제(18일) 상임위에서 15조원 내지 20조원 추경을 하면 성장률을 약 0.2%포인트 올릴 수 있고 경기 대응에도 적절하다고 답했다”며 “(민주당이) 같은 내용의 추경 필요성을 언급한지 한 달이 지났다”고 말했다.

그는 “전대미문의 황당무계한 내란 사

태, 불법 비상계엄 때문에 경제 상황이 너무 악화되고 있다”며 “단군 이래 가장 잘 살게 됐다는 선전 대한민국 청년들이 IMF(국제통화기금) 위기 이후 최악의 취업난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 1월 2030세대 중 그냥 쉬었다는 청년이 70만명이 넘어서 코로나 이후 최대를 기록하고 있다”며 “특히 30대는 통계 작성 이래 가장 많았다고 한다. 풀타임 아르바이트조차 없어진 고용시장에서 초단시간 근로자 비율이 처음으로 6%를 넘어섰다”고 설명했다.

그는 “민주당은 추경안에 일자리 창업 예산안 5000억원을 편성했다”며 “정말 중요한 것은 민주주의 회복이고 또 거기에 더해서 민생과 경제 회복”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부·여당을 향해 “‘소비구

폰이 불가능하다’, ‘도저히 죽어도 못하겠다’ 싶으면 일자리 창출과 창업 지원에 쓰는 게 어떻겠냐”라며 “이역시 국정협의회에서 함께 논의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앞서 민주당은 전국민 25만원의 ‘민생 회복 지원금’을 소비 쿠폰 형태로 지급하자고 제안했지만, 국민의힘은 이를 ‘현금 살포 포퓰리즘’이라며 반대했다.

한편 ‘우클릭’ 행보를 보이고 있는 이 대표가 “민주당은 중도보수 정권으로 오른쪽을 맡아야 한다”고 말한 것을 두고 당 내에서 파열음이 나오고 있다.

이 대표는 전날 야권 성향 유튜브 ‘새날’에 출연해 “우리는 진보가 아니다”라며 “사실 중도 보수 정도의 포지션을 실제로 갖고 있다. 진보 진영은 새롭게 구축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김부겸 전 국무총리는 이날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유구한 역사를 가진 우리 당의 정체성을 혼자 규정하는 것은 월권”이라며 “진보의 가치를 존중하며 민주당을 이끌고 지지해온 우리 당원들과 지지자들의 마음은 어떻겠냐”라고 직격했다.

3선의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당의 정치적인 이념 성향을 규정하자면 중도 보수적인 스탠스가 맞다”면서도 “중도 보수를 지향한다는 게 아니다. 당은 진보적인 지향을 하고 있다”고 진화에 나서기도 했다.

정치권에선 이 대표가 ‘중도보수’를 주장하는 것은 조기 대선을 염두에 두고 지지층을 넘어 중도·보수층을 공략하려는 의도라는 분석이 많다. **서울·김선욱 기자**

“해상풍력·전력망 특별법 국회 통과 환영”

산자위 통과... 이달 본회의 처리 김 지사 “전국 1위 재생에너지 추진”

전남도는 19일 해상풍력발전 보급촉진 특별법안과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안이 이날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한 것을 적극 환영한다고 밝혔다.

전남도는 전국 1위의 재생에너지 자원 개발을 통해 에너지 기본소득을 실현하고, 첨단 글로벌 재생에너지100(RE100) 기업을 전남에 유치하는 것을 도정 핵심과제로 추진하고 있다.

법안이 통과되면 지역소멸 위기 극복 및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에너지 분야 3대 브랜드 시책인 △에너지 기본소득 △에너지 고속도로 △RE100·분산에너지 법적 지원 기반이 확대돼 사업 추진에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해상풍력특별법안에는 10개 정부 부처와 협의를 진행해 장기간 소요되는 해상풍력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하고, 전남도가 지속해서 건의한 지자체의 예비지구 신청 권한과 발전사업 실시계획 협의 권한 등이 포함됐다. 지역 주도의 해상풍력 사업 추진이 가능해져 2035년 30GW 해

상풍력 단지 조성 목표 달성이 기대된다. 또 전력망 확충법안이 통과되면 재생에너지 확대에 필요한 전력망 조기 구축을 위한 35개의 인허가 의제, 사업 지연 방지를 위한 60일 이내 주민 의견 수렴, 주민 특별보상 등이 가능해져 송전망 건설이 속도감 있게 추진될 전망이다. 이 법안에는 전남도가 적극 건의한 △전력계통 포화지역 우선 선정 △고속도로와 같이 정부가 전력망 개발사업 비용 지원 △지역 내 생산 전력은 해당 지역에 우선 공급 등이 반영돼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획기적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전남도는 2개 법안 제정 이후에도 △체계적 주민 보상 및 지원 △민원 해소를 위한 산업부 산하 원스톱 종합민원센터 설치 △국가가 전력망 건설에 정부 재정 50% 이상 적극 투입 등 정부의 적극적인 역할을 끌어낼 계획이다.

김영록 지사는 “재생에너지 4법을 조속히 완성하고, 데이터센터 등 첨단산업 유치와 이를 통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 온 힘을 쏟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들 법안은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이달 중으로 본회의에서 처리될 전망이다. **오지현 기자**



쿠팡-소상공인·민생단체 상생협약 체결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쿠팡-소상공인·민생단체 상생협약 체결 및 배달앱 사회적대화기구 출범식에서 참석자들이 상생협약서를 들고 기념촬영하고 있다. **연합뉴스**

‘전남에 세계 최대 AI데이터센터’

1면서 계속 브라이언 구는 “현재 한국의 데이터센터는 주로 국내 수요를 맞추고 있지만 한국은 세계 시장을 겨냥한 대규모 데이터센터를 운영할 수 있는 적절한 조건을 갖추고 있다”고 말했다.

WSJ는 데이터센터가 들어설 구체적인 장소는 언급하지 않고 “서울에서 멀리 떨어진 남서부 지역에서 추진되고 있다”며 “올해 초 착공에 들어가 오는 2028년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남서부’ 지역과 관련해 투자자들이 전력 및 수자원 확보 등의 지원을 받기 위해 전남도와 협약을 체결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며 전남지역이 데이터 센터가 들어설 장소로 점쳐졌다.

실제 전남도는 지난 5일 도청에서 ‘스톡 팜 로드’의 자회사인 퍼힐스(Fir Hills)와 데이터센터 건설을 위한 상호협력 내용을 담은 업무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오는 24일부터 3월1일까지로 예정된 김영록 전남도지사의 샌프란시스코 등 미국 방문 기간 중 데이터센터 건설을 위한

구체적인 협의 방안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투자자는 한국이 AI 데이터센터 구축을 위한 국제적인 입지 조건을 갖췄다고 판단해 부지를 물색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남도 관계자는 “구체적인 데이터센터 규모와 장소 등은 결정된 것이 없다”며 “오는 26일 샌프란시스코를 방문해 투자사와 데이터센터 건설을 위한 구체적인 협력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이다. 미국에서의 협약 이후 구체적인 내용이 공개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린 알로에

그린 프리미엄 베라골드 400 알로에겔

그린알로에 건강기능식품은 단 1%도 중국산 원료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현대인들의 면역력 증진 뿐 아니라 장 건강, 피부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알로에 본고장인 미국산

- ✓ 유기능 알로에베라겔 즙액 400%
- ✓ 면역다당체 하루 섭취량 300mg

알로에 베라겔 즙액으로 400%

소비자상담실 080-234-6588

■ 제조사 : 코스맥스엔비티(주)
■ 유통전문판매원 : (주)그린알로에

※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에서 광고심의 받은 광고물입니다.